

김별아의 문학과 삶



아들의 농사

꽃잎이 유별났던 2주 전의 일이다. 아침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 가 있어야 할 아들아이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토마토는 둘 다 죽고, 고추도 하나 죽은 것 같고, 깃잎은 두 개 죽고, 상추도 다 시들었다. 상추가 시들 줄은 몰랐네...'

문자 뒤에는 우리는 얼굴을 형상화한 이모티콘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등굣길에 지난 주에 심은 모종들이 걱정되어 학교 앞 뒷밭을 살펴보다 이상 저온으로 '냉해'를 입은 작물을 발견한 것이다. 순바닥만 한 밭떼기에 소작질하듯 벌인 농사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온 것을 알기에 얼른 위로의 답장을 보냈다.

'상추랑 깃잎은 일단 물 줘 보고, 토마토랑 고추 죽은 건 모조 사서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심자. 열매색은 5월에 심어도 충분 하다니, 속상하겠지만 너무 걱정하는 마법.' 죽은 모종을 뽑아내며 아파할 그 마음이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문자 뒤에 '하트' 표시도 볼여 보냈다. 더디 오는 봄이 새삼 원망스러웠다.

아들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필수 과목으로 '농사'를 가르친다. 네 반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한 번씩 2

시간 수업을 하며 직접 작물을 파종하고 재배하고 수확한다. 학교에서 빌린 땅은 애초에 농사땅이라기보다 돌밭이라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돌을 고르고 흙을 다지기 위해 진땀을 뺐다.

농사 수업이 있는 금요일마다 집에 돌아온 아이의 머리에는 먼지가 새쁘게 앉아 있었다. 땀과 흙물로 얼룩진 옷을 빨며 혹 힘들거나 귀찮지 않은가 물으니, 아이는 정색을 하고 농사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의 하나라고 대답한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아이는 종간고사가 끝나면 떠날 농촌봉사 체험활동을 자나 깨나 기다린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행한 농촌봉사 활동이 벌써 다섯 번째인데, 올해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년간 찾았던 충주시 소태면 복단리로 떠난다.

중·고교 6개 학년이 나누어 떠나는 활동지는 경기, 강원, 충청도의 경계 지역에 자리한 곳으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의 소속 마을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먹는 먹거리들이 자라는 곳을 찾아 그 생산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아들아이의 학교에는 이 농촌봉사 체험활동과 얹힌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온다. 사

도 그렇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스팔트 키드'들에게 농사일이나 농촌 생활이 매우 편편할 리 없다. 서툰 고양이 손에게 큰일이 맡기지 않겠지만 낯선 노동이 고단하기도 할 것이고, 무엇보다 세면과 잠자리가 익숙한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고주발, 담배발에서 김을 매고 비닐을 치우며 아이들은 일손을 돋는 당시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각성하고, 논두렁에서 새참을 막다 어른들께서 권해주시던 막걸리 한 잔에 알현하여 행복해한다. 조금의 불편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즐거운 체험이 2박 3일의 짧은 시간 동안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실로 도시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향'을 갖지 못한 세대다. 이미 고향을 떠난 부모가 형편이 되는대로 자리 잡은 타향에서 태어나 집값이나 학군에 따라 이사를 다녔던 아이들에게는 추억하며 그리워할 인상이 없다. 그러나 세상의 상처로부터 도망쳐 숨어들 곳이 없을 뿐더러 방황하다 돌아갈 곳도 없다. 절여물어 상처받기 쉬운 어리고 예린 몸과 마음으로 고작 PC방에 숨어들거나 비정한 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들아이의 학교에는 이 농촌봉사 체험활동과 얹힌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온다. 사

총기의 반향으로 부모와 다른 아이 하나가 무작정 집을 뛰쳐나가 가출을 했단다. 부모가 사방으로 찾아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대소동 끝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이 온 곳은 바로 농촌봉사 체험활동을 갖던 바로 그 마을. 이장님 댁에서 머슬처럼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으며 며칠을 보낸 아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다시 집에 돌아왔다니 어땠단다.

하루빨리 복단리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아들아이에게 그곳이 왜 그리고 좋으냐고 물으니 두 가지를 손꼽는다. 하나는 일을 나가며 지나는 남한강의 풍광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며 바라본 밤하늘에 그토록 무수한 별무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가 그리워하는 것은 딸 아닌 노동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아름다움이었다.

그것이 농촌 체험을 통해 땀의 가치와 멀거미의 소중함을 몸으로 깨닫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러한 교훈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추억이란 본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니까. 올해도 열여덟 살짜리 아들의 농사가 부디 넉넉하고 행복하길 빌어 본다. <소설가>

종교칼럼

사람은 누구나 사명적인 존재다



김재영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가 있다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이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使命)'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기독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소명(召命·mission 혹은 calling)의 문제이다.'

복유럽의 기독교 철학자 카이르케고르가 스물두 살 때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불들고 놓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해야만 한다. 이것을 위하여 살고 이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말이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헐티도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명이란 심부를 맡은 목숨, 심부를 맡은 생명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다. 우리는 사명 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사명을 영어로 'Mission'이라고 한다. 이 말은 라틴 말 'Missio'에서 유래한다.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인간은 어떤 직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다. 사명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성실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든다.

아프리카 탑원의 대업을 성취한 리빙스턴은 "사명을 갖는 자는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큰일을 한 사람들은 대개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결정적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데, 이때 인생의 확고한 사명을 자각했다.

성경에서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

링컨은 열아홉 살 때 뉴올리언스의 노예 매매시장에서 노예들이 백인에게 매매되는 쳐첨한 비극을 보고 "언젠가 때가 오면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야 말겠다"라고 굳게 결심했다.

이 종격과 의문과 결심이 링컨으로 하여금 후일 노예 해방의 대업을 성취시켰다. 링컨의 가슴속에 깊이 맛한 큰 사명감이 그로 하여금 노예해방의 대업을 이루게 한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에는 네 가지 중요한 말이 있다.

첫째,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나누고 섬기라는 것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다. 윈프리는 혼혈아, 가난한 자, 버림받은 고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 우리들도 고통받는 자들과 이를 함께해야 한다.

사명의 자각은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철인으로 만들었다. 사명감 그것은 위대한 힘의 원천이며 놀라운 대업의 비결이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자각하기 바란다.

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10: 42)"라고 말씀한다.

셋째,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선한 사람이나인의 비유가 나온다. 강도를 만나고 통받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기의 가진 것을 털어 놀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다. 거룩한 부담이란 좋은 일을 보고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말한다.

사명의 눈이 뜨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다. 사명의 자각은 인간을 새사람으로 만든다. 그것은 인간 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바로 그 존재의 의미가 존재의 사명이다.

사명의 자각은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철인으로 만들었다. 사명감 그것은 위대한 힘의 원천이며 놀라운 대업의 비결이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자각하기 바란다.

기고

생각을 바꾸면 언제나 '안전海'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 창설 60주년, 사람으로 따지면 귀가 순례진다는 이순(耳順)의 나이다.

요즘의 아이는 청년으로 자리났고 유혹에 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不惑)과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地天命)의 시기를 보냈다. 그동안 우리 바다는 수출 중심의 산업화로 선박 물동량이 늘어났고 어선 척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증가와 관심증대는 해양안전에 대한 또 다른 패러다임을 낳게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지난 60년간 해양경찰

은 단 한 번도 바다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춘 적이 없다. 독도, 이어도와 같이 해양영토 수호는 물론이고 우리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출력 대응에서도 해양안전은 언제나 그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3년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낚시어선 승객을 초과해 운항하다 전복되는 일, 인명구조 장비도 없이 출항했다 화재를 당하는 일, 정비소홀로 더 큰 사고를 부르는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선박 증가와 해양활동 증가에 해양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높여왔다 치더라도, 지난 60년간 바다 안전만을 생각해 온 해양경찰의 노력에 비추어볼 때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양경찰은 오염사고를 겪으면서 방제 전문가로 거듭나고 해양사고를 통해 수색과 구조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했지만 바다를 대하는 국민들은 안전 의식은 여전하다. 122 긴급번호로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통보돼 동원 가능한 인명구조장비

가 총출동하는 종합구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능형 해상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 위치 발신장치인 RFID 보급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는 등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에 대한 추진 방안은 해를 더할 수록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구명조끼는 불편할 뿐이고 선박 정비는 사후 대처의 방편이다. 아직도 정원조과와 음주운항은 비난의 대상도 안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결국 큰 참사를 불러일으킨다.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철저한 예방정비와 운항상의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해양 사고임을 직시하지 못하는 결과다.

수시로 변하는 기상은 물론이고 지뢰처럼 자리잡은 암초와 부유하는 각종 위험원에 대한 안전의식은 여전히 가장 큰 원인이다. 한 해 200여건에 달하는 해양사고의 90%가 운항자의 과실 등에 비롯된 인재(人災)임을 보여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해를 해양경찰은 6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상대방의 너무나 친절하고 세세한 설명까지 하더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훈련병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페箩고, 이들은 외부와 전화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군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것이 만약 우리 농촌에 돌버섯처럼 더 퍼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면 대책이 없다.

기회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은근히 불안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경찰, 검찰, 그리고 아들이 입대한 군대라는 말이다. 이런 곳과 관련된 전화 연락을 받으면 가슴부터 철렁한다. 그런 걸 노려 농촌의 순박한 농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혹시 농촌에서 군에 보낸 아들이 있는 농가는 아들이 돈 한푼 필요없는 게 요즘 군대

이하면서 해양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쉽게 달성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 전체 해양사고를 3분지1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쉬운 목표달성을 못해더라도 사고 발생을 보다 확실하게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국가기관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절대 달성을 수 없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과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의식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것이다.

이순(耳順)의 해양경찰이 지나온 60년보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 만족의 꿈을 안은 출항이 마지막 항해가 되지 않도록,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느슨해진 안전의 신발 끈을 고쳐 매보자.

기회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은근히 불안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경찰, 검찰, 그리고 아들이 입대한 군대라는 말이다. 이런 곳과 관련된 전화 연락을 받으면 가슴부터 철렁한다. 그런 걸 노려 농촌의 순박한 농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혹시 농촌에서 군에 보낸 아들이 있는 농가는 아들이 돈 한푼 필요없는 게 요즘 군대

이하면서 해양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쉽게 달성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 전체 해양사고를 3분지1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쉬운 목표달성을 못해더라도 사고 발생을 보다 확실하게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국가기관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절대 달성을 수 없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과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의식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것이다.

이순(耳順)의 해양경찰이 지나온 60년보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기회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은근히 불안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경찰, 검찰, 그리고 아들이 입대한 군대라는 말이다. 이런 곳과 관련된 전화 연락을 받으면 가슴부터 철렁한다. 그런 걸 노려 농촌의 순박한 농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혹시 농촌에서 군에 보낸 아들이 있는 농가는 아들이 돈 한푼 필요없는 게 요즘 군대

이하면서 해양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쉽게 달성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 전체 해양사고를 3분지1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쉬운 목표달성을 못해더라도 사고 발생을 보다 확실하게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국가기관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절대 달성을 수 없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과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의식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것이다.

이순(耳順)의 해양경찰이 지나온 60년보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기회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은근히 불안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경찰, 검찰, 그리고 아들이 입대한 군대라는 말이다. 이런 곳과 관련된 전화 연락을 받으면 가슴부터 철렁한다. 그런 걸 노려 농촌의 순박한 농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혹시 농촌에서 군에 보낸 아들이 있는 농가는 아들이 돈 한푼 필요없는 게 요즘 군대

이하면서 해양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쉽게 달성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